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16.(화) 08:30 배포: 2026. 6. 16.(화) 08:30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이끈다

- 국민권익위, 오늘(16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한 특강 및 질병관리청·서울특별시 우수사례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통제 제도로서 법률·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를 감시·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제도

□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3개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약 700여 명이 참여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무 현장의 구체적인 우수 활동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의 연사로 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은 '청렴옴부즈만, 단순 감시자가 아닌 조직 변화의 조언자 역할 중심'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질병관리청 전해성 감사담당관은 소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한 주요 시책을 발표한다.

서울특별시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 활동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추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워크숍 이후 7월과 8월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조직의 청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주경희 (044-200-716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1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민권익위#부패방지#청렴시민감사관#워크숍#제도개선#청렴문화확산